

“민속예술의 문화유산 가능성을 생각하며”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위어가는 우리 민속예술을 발굴·복원 28년 만에 다시 찾아와

사위어가는 우리 민속예술을 발굴·복원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전통문화예술 일변지 전주에서 28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전국에 흩어져 전래되는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국가적인 규모의 민속축제로 지난 1958년 처음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 제3회 축제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속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흥·보급을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치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선 다채로운 민속예술들이 재현된다.

축제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3~14일, 한국민속예술축제 15~16일의 일정으로 각기 전개된다. 입장·개막식 및 개막 공연은 각각 오후 2시와 오전 10시.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이북 포함 한 전국 20개 시·도 대표 1250여명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14개 시·도

대표 700여명이 참가하며 지역을 대표해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경연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3일에는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는 좌담회가, 14일에는 축제 참가팀과 전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아간민퍼레이드 ‘온고을 길포내기’와 소리꾼 장사익의 토크콘서트 ‘소리고백’, 15일에는 영희감독 이준익의 ‘율름고백’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전주의 특색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마당, 전통공예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 전주 시민들의 참여로 꾸러질 민속관 프리마켓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다.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간의 축제를 통해 총 400여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종이 넘는 민속예술 종목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0종이 넘는 종목이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봉산탈춤(1961), 강강술래(1961), 남사당놀이(1976), 안성남사당풍물놀이(1988) 등이 이 축제를 통해 발굴되고 재인식 되었

으며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농악 등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재조명된 일부 작품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 문의 063)280-1852~3. /정해은 기자

남원시 ‘대한민국 국악대제’ 열려

초현례·축문낭독 등으로 진행

제10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 주관으로 10월 9일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기관단체장 및 국악 명인 명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유명 국악인 및 남원시의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공연, 개제, 초현례, 축문낭독, 아현례, 종현례, 분향, 묘역참배 등 1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된다.

식전행사로오는 진도 씻김굿보존회의 씻김굿과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 보림’에 이어 민살풀이 춤의 대가 故조갑녀 명인의 딸 정명희 교수의 현무와 남원시립국악단 예술총감독 이난초 명창의 현가 등이 있으며, 대제에는 초현관에 제1회 춘향국악대전 대상 수상자 조상현 명창, 아현관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김일구 명창, 종현관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박종선 아쟁 명인 등 많은 명창 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집례는 전인삼 전남대 국악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국악대제에 앞서 8일 오후 6시부터 중앙하이츠콘도 대연회장에서는 전야제 행사로 기념공연, 공로패 전달식, 만찬 등과 함께 ‘동편제 관소리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전인삼, 김기영, 최수정 교수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강과 국악대제에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국악과 학생 120여명이 참석하게 되며 대제 후에는 남원의 국악 유적지를 둘러 볼 예정으로 있어 국악 본고장 남원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운봉읍에 2007년도에 개관하여 악성 육보고, 가람 송흥록, 국창 송만갑, 국창 박초월 등 49위의 국악산인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국악관련 전시관 및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각급학교 수학여행단을 비롯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년중 국악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무형유산 한마당’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남원시는 공동으로 (2016 남원시 무형유산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매년 시·군 한 곳을 선정하여 지역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공연·전시, 무형유산 기록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무형문화재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보호 노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남원시가 지역축제인 ‘제2회 흥부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재 무형문화재 26개 종목을 목록화 하였고 대표종목 ‘삼동굿놀이’, 외놀이제사, 방구부께’에 대해서는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일 오후 2시 사랑의 광장에서 열리는 무형유산 한마당에서는 남원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인 ‘삼동굿놀이’(남원 보절면 전승) 특별공연, 지난해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인 충남 당진시의 ‘기지시출다리기’(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시연과 풍물채 초청 공연, 국립무형유산원이 ‘민인의총’을 주제로 창작한 ‘생명의 땅, 무영의 꽃’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위 프로그램과 더불어 흥부제 기간에는 무형유산 체험도 마련된다. 남원의 대표적인 전통기술인 방구부께에 전통 단청으로 문양 그리기(7일), 전통매듭 기법을 이용한 금은보화 팔찌·목걸이 만들기(8일), 전통자수 기법을 이용해 ‘흥부전’에 등장하는 박 문양 장신구 만들기(9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전통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료로 운영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의 관계자는 “각 지역과 연계한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280-1523. /정해은 기자

“가을 정취 더하는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 함께 들어요”

고창모양성제와 함께하는 'KBS 국악한마당' 개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6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국악 프로그램 KBS ‘국악한마당’이 ‘제43회 고창모양성제’와 함께 했다.

6일 오후 2시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 KBS ‘국악한마당’은 국악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무대는 국악계의 뛰어난 명인과 젊고 재기발랄한 국악인의 연주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민요, 창작국악, 시조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이시대의 가객 김용우가 들려주는 민요 ‘눈실타령’과 ‘배령’가를 비롯해 지난해 제 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젊은 소리꾼이자 고창출신 판소리명창 정수인의 단가 ‘강상풍월’, 서도소리 배뱅이굿의 명창 박정욱이 재담을 섞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산문시집인 질마재 신화를 풀어낸 음악극 ‘질마재 신화’, 미려한 성음의 소리꾼 정은혜의 민요 ‘신사참가’, ‘금강산



1990년부터 지금까지 26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국악 프로그램 KBS ‘국악한마당’이 ‘제43회 고창모양성제’와 함께했다.

타령’ 등으로 전통성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명인 김일구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진도씻김굿의 소리와 반주음악으로 재구성한 바다지의 ‘씻김시나위’, 가야금과 해금연주로 구성된 어 전통악기 중 현(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국악창작그룹 자락의 ‘술길’,

YOUKI’, ‘노다가게’는 전통가악과 창작가악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오는 9일까지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7일에는 모양성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가 오전 10시부터 이뤄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통고법조준회

‘타고동락’ 선배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서

(사)일통고법조준회 전북지회는 제1회 ‘타고동락’ 정기공연을 오는 8일 오후 5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갖는다.

일통고법조준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인 김청만 명고를 필두로 예능을 사사받은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이 가운데전북지회는 작품 창작 및 악기 계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의 타악공예 레퍼토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타악으로 즐기자는 의미로 마련된 이날 공연은 소리북 합주 ‘고성’으로 시작한다. 이어 생활시조와 진도북춤, 판소리, 모듬북 합주곡 ‘문곡’ 등으로 타악의 유희를 선보인다.

신은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에는 고법 인간문화재 김청만 선생이 특별히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소영 명창(남원 춘향제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김규형 명고(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김안운 명무(MOD 무용단장), 관광(생활 연주자)이 신명나는 무대를 꾸미게 된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0월 7일>

▷쥐띠

46년생: 처음은 좋으나 후에 난관이 따르니 주의가 필요.
60년생: 사람으로 인해 울고 웃으니 경계를 늦추지 마라.
7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

▷소띠

49년생: 건강과 재물이 좋지 못하니 욕심은 금물!
61년생: 손이 많아짐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 고마워할 일이 생긴다.
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기에 주의하라.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

▷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인정을 받는다.

▷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
88년생: 자신보다 어디라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

▷뱀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흉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약속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산다.

▷말띠

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
78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라.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다.

▷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작은 것을 얻었고 더 큰 것을 욕심 내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할 일이 발생한다.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라.

▷닭띠

57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을 운.
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
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개띠

48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
60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
72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이니 섭생에 주의가 필요.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주의하라.
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